

# 작은 영화제

————— 그 첫 번째!

고용안정으로 살맛나는 일터를

-----90년대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대책

파업쟁야

-----한국 독립영화의 정수

3000 여학우의 사랑 / 일만 홍익의 자랑

13 대 자주적 여 학생 회

권두시

회장 인사 - 반갑습니다. 여학생회입니다.

일상사업부 - 작은 영화제를 준비하며

<파업전야>에 대한 이야기

권두시

노동자 이야기 - 1. MAY DAY!

2. 들불은 꺼지지 않으리라!

3. 들꽃이여! 불꽃이여!

그대의 이름은 여성 노동자!!!

순서

앞을 더욱 알찬 작은 영화제를 위한 설문지

광고 - 1. 여성 문화제

2. 우리민족 살리기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жат뵈하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다는 말이다!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자뵈아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앞에서, 뒤에서, 시면뵈방에서

꿈일 줄 모르고 불꽃은 들뵈처럼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뵈를 끌 수 없으리라.....”

## 반갑습니다. 여학생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입니다. 곳곳에서 꽃향내음이 시원한 바람에 실려옵니다. 나뭇가지의 잎파리도 그 밝은 푸른빛을 자랑하는 듯 여기저기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날씨는 이렇게 풀렸지만 지금의 정세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단군이래의 최대비리라고 일컬어지는 한보비리. 계속적인 청문회와 정치인들의 구속. 한 50대 은행장의 자살. 그리고 대통령의 대선자금..... 정신없는 이러한 사건들을 잠시 제쳐두고 작년을 떠올려봅시다.

작년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으로 정신없었던 96년 12월이 생각나십니까? 12월 26일 새벽 그렇게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빠른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외치던 한 여당정치인의 모습은 우리를 너무나도 경악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들과 학생들,민주시민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노동악법철폐, 김영삼정권 타도를 외쳤고 이러한 모습은 그들에게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 바로 이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있어서 여성노동자들의 힘은 과히 무시할 만한 것이 못되었습니다. 비록 남성노동자들의 수에 비해서는 작은 수였지만 그 하나하나의 열의와 열정은 그 누구못지 않게 활활 타올랐습니다. 더욱더 열악한 환경속에서 적은 임금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그렇기에 더욱더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정권에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물화장품등 많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폭력강패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성폭력도 서슴치 않았습니.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에게 닥친 많은 문제점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 분노를 가슴깊이 느껴야 할 것입니다.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입니다. 이날의 의미를 같이 공유하고 지금의 노동자의 현실, 그중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해 봅시다. 우리는 미래의 여성노동자입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각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달에 한 번 하는 작은 영화제 그 첫 번째 자리를 노동절을 맞이하여 뜻깊은 자리로 가져가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흥익 학우들과 교정에서, 휴게실에서, 강의실에서 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000여학우의 사랑 일만 흥익의 자랑

13대 자주적 여학생회 회장

전자전기제어공학과 3학년 최순자

## 작은 영화제를 준비하며

---

안녕하세요.

일상 사업을 고민하며 작은 영화제는 가장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대중적으로 흥미있어하는 영화관람을 통해, 그리고 같이 영화에 대해 얘기해봄으로써 그 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여학생회가 학우 여러분 가까이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화속에 담겨진 여성문제, 더 나아가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들을 여러 사람의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 서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이번에 상영할 영화 중 '파업전야'는 구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이 영화는 암울했던 시대에는 학교에서 언제 들어닥칠지도 모르는 탄압의 긴장속에서 힘들게 상영되기도 했던 영화입니다. 그런 탄압 속에서도 학생들 사이에서 상영되었던 만큼 노동 영화의 정수라 불리는 좋은 영화겠죠. 뛰어 다니며 어렵게 구한 영화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잘 보아주셨으면 좋겠고 모순이 많은 사회속에서 자칫 그냥 지나치기 쉬운 노동자의 삶을 조금이나마 그리고 생생히 들여다보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00여학우의 사랑, 1만 홍익의 자랑  
제 13대 자주적 여학생회  
일상사업을 맡은,  
영교96 최경숙

## <파업전야>

-한국 독립 영화 운동의 최정점이며 사회체제에 정면으로 대항한 가장 정치적인 영화

감독: 이은기, 이재구, 장동홍(대표연출),장윤현/ 각본: 공수창,김은채/ 촬영: 김채홍,오정옥,이창준/  
편집: 정성진,정진환/ 음악: 안치환,조성옥/ 출연: 강능원, 고동엽,김동범,박종철,박홍규,이용배

### 작품해설

영화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밀물처럼 터져 나오던 1987년 가을, 작업복을 입고 식사하던 노동자들을 비추며 시작한다. 식사중, 한 노동자가 식판을 엮고 식탁위에 올라간다.

“동성 금속 노동자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주역,산업역군, 수출전사가 먹는 밥입니까? 우리가 노예입니까? 아니면 기계입니까? .... 우리도 인간입니다.”

그 노동자는 관리자들에게 폭력적으로 끌려간다.

타이틀이 올라간 후 다시 1988년 겨울, 반 년 전의 의식적인 움직임이 실패한 후, 열악한 작업환경과 저임금 속에 시달리는 동성 금속의 노동자들. 매일 잔업과 철야 그리고 비인간적 대우등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던 단조 반원들은 월급날 잔업을 빼는 것을 계기로 소모임을 만든다.그들 중 원기와 석기 그리고 위장취업을 한 완익을 중심으로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 가시화 되고, 현실적인 굴레에 매여 자신의 권리찾기를 망설이는 한수가 또 하나의 갈등 축으로 등장한다. 노동자들은 회사측의 방해공작을 뚫고 민주노조 건설에 박차를 가하지만, 회사측은 해고로 맞서고 축력배를 동원한 테러도 서슴치 않는다. 이 모습을 지켜 보던 한수를 비롯한 다른 노동자들은 자신이 간혀 있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스패너를 들고 동료들을 구하러 뛰쳐 나간다.

광주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오! 꿈의 나라>로 비제도권 영화의 가능성을 타진했던 영화 제작고 “장산꽃매”는 <오! 꿈의 나라>에서 비판 받았던 지식인적 한계를 “파업전야”를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 “파업전야”가 등장한 지 5년이 지나간 지금도 제도권에서나 비제도권에서나 “파업전야”만큼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사실적으로 그려 낸 영화는 없다. 또한 파업전야”는 1980년대의 민중 영화 운동의 성과와 노동 운동의 성과가 영화적으로 표현된 귀중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

“파업전야”의 대단했던 영화 내,외적 성과 속에서도 아쉬운 점은 이 영화가 영화가 영화 운동의 차원에서 기폭제가 되기는 했지만 진보적 영화운동 진영의 내용적 성과를 자리매김 하지 못했으며, 제도권 영화에서든 “파업전야”의 성과(9당시 사회 구조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를 끌어 안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파업전야”는 시대적으로 보다 일찍 만들어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문화학교 서술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 중에서

# 노동자 이야기

## 1.MAY DAY!

오는 5월 1일이면 107돌을 맞이하는 세계 노동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근로자의 날로 잘 알려진 날이지요.

메이데이는 매년 5월 1일 전 세계 노동자들이 파업과 집회 및 시위를 통해 노동자들의 단결을 과시하고, 노동자들이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동자 단결의 날, 투쟁의 날, 노동자 국제 연대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동안 겪은 투쟁을 기념하고, 노동자 서로에게 힘을 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현 사회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한 날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노동절의 탄생은 100여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한 시위에서 시작합니다.

1890년 미국은 노동자들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전체 국민의 8분의 1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최상층의 1%의 소득이 전체 국민의 절반을 차지했던 최하 빈민층의 총소득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7살에서 16살에 이르는 아이들이 생계를 잇기 위해 주당 1-5달러의 임금을 받으며 12시간이 넘는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등 노동자들은 인간이하의 생활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로 투쟁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작업환경 개선,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나갔습니다. 이에 미국, 캐나다 노동 총연맹은 1886, 5월 1일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5월 1일, 노동자들은 일제히 자신의 손에서 망치를 놓았습니다. 수만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외치며 가족과 함께 거리로 나왔고 평화적인 이 집회를 폭력 경찰이 막으려 하였지만 헛수고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5월 2일, 경찰은 노동자들에게 총을 발사했고 어린소년을 포함 6명의 노동자 죽었습니다.

5월 3일, 이에 항의하기 위해 헤이 마키트 공장에서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날 무렵, 180 명의 기동경찰은 집회해산을 명령하였으나 노동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때 어디선가 폭탄이 터지고 경찰은 총을 난사해 200여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기업주와 경찰의 조작 합작극인 “헤이 마키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노동자 8명에게 사형, 징역형을 내리는 것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20개국의 노동자 대표가 모여 국제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노동보호, 동맹파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과 함께 8시간 노동제의 획득이 결의 되었으며,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널리 알리고, 확산시키기 위해 5월 1일을 국제적인 노동자의 명절로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탄생한 메이데이는 해마다 자본가와 권력의 수많은 탄압 속에 성스럽게 거행되었고, 메이데이를 따라 면면히 흐르는 노동자들의 투쟁정신은 승리의 그 날 까지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도..

## 2. 들불은 꺼지지 않으리라!

한편, 노동절 107주년을 맞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이라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자 현실의 가혹함을 대변하는 한 예입니다. 노동자가 진정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두려워한 박정희정권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 그나마 이름으로만 남아있던 노동절을 이름조차 빼앗아가 근로자의 날이라고 고치고, 갖은 탄압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전의 이승만은 아예 5월1 일 대신 3월 10일(대한 노총 결성일)을 노동절로 정하는, 지금으로써는 실소를 금할 길 없는 짓을 하였습니다. 이승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역대 정권들은 하나같이 노동자의 권리찾기, 세상열기의 열망을 잔인하게 짓밟는 데 자본가들과 함께했습니다.

임금삭감, 정리해고에서부터 인분을 퍼붓고, 가족을 협박하는 등의 탄압은 세상이 흘러 가도 변하지 않고 존재합니다. 93년 현대 자동차 노조 탄압, 94년 전국 지하철노조, 95년 한통노조 탄압과(명동성당을 침탈 한 것은 간 큰 남자의 대표적 예) 96년 크리스마스 특별선물인 노동법 개악에 이르기까지 문민의 탈 아래에서도 모래시계의 아픔은 유효한 것입니다. 정리해고의 칼날, 변형 근로제의 노예생활, 파견근로제의 위협등 우리 노동자들은 세계 일류의 싸움터에 용병으로 싸우다 이름없이 버려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 속에서도 들불은 꺼지지않고 번져 갑니다!!!!!!

## 3. 들꽃이여! 불꽃이여! 그대 이름은 여성 노/동/자

남성 노동자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중의 멍에를 쓰고 일해야 하는 여성 노동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비율은 여느 후진국 못지 않습니다.

노동 시간 또한 신체구조를 핑계로 남성 노동자보다 1-2시간이 많은 세계최장을 자랑 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꽃으로 대우 받고,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모성의 권리는 의무로 다가와 어드렁 여성의 삶에 족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 1970년대 노동 운동의 들불로, 여성 노동자가 거세게 일어난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유신의 칼날이 몰아치던 그 때 여성 노동자들은 민주노조 건설과 작업환경 개선을 주장하며 남성 노동자들보다 높은 투쟁의 파고를 올렸습니다.

청계피복 노조의 공부방을 지키기 위한 싸움, 한국 콘트롤 데이터의 민주노조 사수 투쟁, 해태제과, 백양 메리야스, 뽕뽕등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여성들은 들불로 타올랐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운동사에 길이 남을 YH노조 투쟁은 유신을 끝장내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당시 YH는 위장폐업으로 민주노조들을 쫓으려 하였으나, 노조원들은 굴하지 않고 싸워 나갔습니다. 이에 사측은 정부와 합작으로 대대적인 노조 탄압에 들어 갔고 이에 항거하여 당시 신민당사 점거 농성에 들어갑니다. 정부와 사측은 마지막 수단으로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폭력 연행을 하고 결국 이 사건은 여성 노동 현실을 사회적으로 크게 환기 시키고, 박정희 정권의 기만성을 드러내 유신을 끝장내는 단초가 됩니다.

이렇듯 눈부신 활동을 하였던 여성 노동자들은 현재에도 그 역사를 이어갑니다.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파업의 불길이 타오르던 때, 여성 노동자들은 구사대의 폭력에 굴하지 않고 총파업을 지켜냈고, 총파업이 끝난 지금, 단위 사업장마다 보복형 정리해고, 사측의 고용 강패에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일터를 지켜내고 있습니다.(샤몽 화장품, 나우정밀 같은 사업장) 또한 남녀 임금차별폐지, 모성보호를 위한 법 제정, 탁아소 만들기 등의 여성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 동포 살리기 운동, 정신대 문제, 장애인 문제 등의 사회참여의 폭도 확대하는 등 사회운동의 주체로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노동자는 앞으로도 노동자로서, 또한 이중의 굴레를 깨는 여성으로써 이 땅 들불로, 불꽃으로 거세게 피어날 것입니다.

들꽃이여! 불꽃이여! 그대 이름은 여성 노/동/자!!!!!!



## 앞으로 더욱 알찬 '작은 영화제'를 위한 설문지

(정성껏 써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여학생회의 큰 발전을 가져옵니다.)

**질문 1** 작은 영화제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 보고싶은 영화를 상영한다기에, 평상시에 여학생회에 관심이 많아서 등등

**질문 2** 1) 첫 번째 작은 영화제의 영화선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지금의 시기에  
서 선정한 영화의 내용은 적당합니까?

예) 보다 재미있는 영화를 상영했으면 좋겠다. 의미있는 내용이어서 좋았다. 등등

2) 파업전야와 고용안정으로 살맛나는 일터를..을 보고 느낀점은 무엇입니까?

**질문 3** 작은 영화의 선전이나 장소, 시간등 준비과정에서 본인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미흡한  
점과 마음에 드는 점을 적어주세요.

**질문 4** 1) 여학생회하면 떠오르는 사업과 이에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비판할  
점과 바라고 싶은 점은 무엇입니까?

2) 여학생회일꾼들을 보며 드는 생각은 어떠합니까? 평소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점을  
적어주십시오 (특히 회장에게 하고 싶은 말)

# 여 성 문 화 제

5월 12일, 13일, 15일

여성문화제(:가칭)를 합니다.

우리 주위의 문화들을 되돌아 봅시다.  
외세의 영향으로, 제국주의 문화를 그대로 모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들,  
그리고 상업주의로만 빠져드는 모습들.....  
우리의 현실을 바로보고 우리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많은 모습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접하면서  
물밀 듯이 밀려오는 외세/제국주의/상업주의 문화들을  
주체적으로 창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할 듯 합니다.

여기에 여성문화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가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여성문화제의 꽃!!!

여학생회 여성문화제 힘쓰미 모집!

하하하...!!!

아기다리 고기다리면 힘쓰미를 드디어 모집합니다!

힘쓰미는 여학생회 자원봉사단 고유의 이름으로, 여성문화제를 준비함에 힘쓰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단 한 번 와보시라니까요!!!

힘쓰미를 하고픈신 분은

320-1449(여학생회실-학생회관 3층 316호)로 연락을 주세요~~~!!!

# 우리 민족 살리기

북한동포돕기 -- 우리민족 살리기!!!

민족 대 단결을 통한 평화 통일 운동

이북 동포들이 굶어 죽고 있는 현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이북 동포들을 돕고 싶어 한다. 우리는 그들을 왜 돕고 싶어 하는가? 불쌍해서? 그런 동정심으로?

우리는 이북 동포 돕기를 단순히 '불쌍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자'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를 살리는'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이북 식량난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북 식량난은 그들의 '사회주의 체제'가 잘못된 체제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체제'가 그릇된 것이기에 발생한 것일까?

우리는 이북이 우리보다 '물리적'으로 '못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북의 경제상황이 나쁘다고 우리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제측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GNP등으로 이북 경제를 측정한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북의 경제상황에 대한 자세한 통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북을 연구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이북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과거 70년대의 경우 이북이 이남보다 잘살고 있었다는 것은 온세계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오직 이남 사람들만 모를 뿐.

이북 경제는 처음부터 철저히 자립적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 이북은 중공업을 위주로 농업과 경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이북의 중공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고, 70년대에 이미 사회주의권에서 전기기관차를 자체로 만들 수 있는 4대 중공업 강국중의 하나로 성장했다. (잠수함이나 칼라TV방송 등도 이미 7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 이북의 중공업과 기초과학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은 이남의 기업들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이북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

그럼, 이런 자립경제가 왜 못사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엔 식량난을 가져오게 되었는가? 이북은 이미 70년대에 식량 자급자족을 실현했었다. UN식량연감을 보면 이북의 단위면

적당 쌀 생산량은 세계 1위라고 보고되어 있다. 절대량에 있어서는 이남이 이북보다 높지만 이북의 인구가 이남의 절반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1인당 쌀 생산량은 오히려 이북이 높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왜? 그것은 분단과 함께 지난 53년간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정책을 써서 북한을 고립시켰기 때문이다. 거기에 지난 2년동안 계속해서 겪은 '수해'라는 천연재해도 한 몫을 한 것이다.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줄곧 대소봉쇄(:소련에 대한 봉쇄)의 연장선에서 북한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북한의 경제와 외교의 고립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1974년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조미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했을 때 미국은 이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북한이 84년에 3자회담을 제안하였을 때도 미국은 냉담하게 반응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협상제안들이 위장평화공세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일차적으로 군사정책에 의하여 지배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미군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지켜주기 위해' 이 땅에 주둔하고 수 많은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이는 한반도에 계속되는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며 남북한에 엄청난 군사비를 부담하게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미군사합동훈련의 진행은 큰물피해를 복구해야하는 이북 군인들을 한미군사훈련에 대응해서 전선에 묶여있도록하여 수해 피해를 제대로 복구할 수 없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런 상황은 북한이 남한과 같은 전쟁훈련을 한다라고 상정하였을 때 남한이 어떤 대응을 할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얼마전 북한의 황장엽비서 망명 이후 북한의 위기설과 동시에 전쟁설을 유포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위한 이남 국민들의 기본적인 민족애를 정치적 논리로, 황장엽의 망명과 그에 따른 성명서를 인용하여 전쟁위기설로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북한은 경제 고립을 통한 식량난으로.

남한은 각종 군사훈련을 비롯, 엄청난 수의 주한미군 범죄와 그밖의 수탈로.

이렇듯 이 땅, 한반도 우리 민족은 외세의 압력으로인한 전쟁책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북한 동포 돕기'는 단순히 '~돕기' 차원이 아닌, '우리 민족을 살리는' 차원이며, 이는 우리 민족이 함께 살아나가기 위한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더 나아가 민족 대 단결과 그를 통한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 작은 발걸음이 되는 것이다.